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제188회 임시회가 10일 열려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김동식 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18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10일 개회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강선경 의원 결산검사위원 선임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4월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8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김동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는 앞으로 열리는 지역축제와 4·19혁명 국민문화제를 철저히 준비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행사를 참여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4·19민주이념 계승과 우리구의 대외인지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한 뒤 매년 4월20일은 장애인

을 마련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과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을 결정하기도 했다.

특히 201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는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강선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선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본승 의원이 “관내 임

대아파트 미사용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김영준 의원이 “동네체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문제에 대하여”, 유인애 의원이 “5급 승진자격 이수시험 제도 폐지에 대하여”라는 내용으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한동진 의원과 유인애 의원이 신상발언을 했다.

4월13일부터 17일까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를 하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안전을 심의할 계획이며, 오는 4월20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전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서울포스트 4면

제18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10일 개회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강선경 의원 결산검사위원 선임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4월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8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김동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는 앞으로 열리는 지역축제와 4·19혁명 국민문화제를 철저히 준비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행사를 참여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4·19민주이념 계승과 우리구의 대외인지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한 뒤 매년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로서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마련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과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을 결정하기도 했다.

특히 201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는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강선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선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본승 의원이 “관내 임대아파트 미사용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김영준 의원이 “동네체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문제에 대하여”, 유인애 의원이 “5급 승진자격 이수 시험 제도 폐지에 대하여”라는 내용으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한동진 의원과 유인애 의원이 신상발언을 했다.

4월13일부터 4월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를 하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전을 심의할 계획이며, 오는 4월20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전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제188회 강북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개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 건
새누리당 의원들 불참 속
표대결 7대 1로 통과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4월 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4월 20일까지 11일동안 제18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김동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이천변 등 벚꽃이 만개하여 주위 환경이 활기차고 싱그러운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모두의 삶이 희망과 즐거움으로 다가오기를 기원하면서 집행부에는 앞으로 열리는 지역축제와 4·19혁명 국민문화제를 철저히 준비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행사를 참여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4·19민주이념 계승과 우리구의 대외인지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신의 장애를 장애로 느끼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마련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제1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김명숙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 201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구본승 의원은 “관내 임대아파트 미사용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김영준 의원은 “동네체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문제에 대하여”, 유인애 의원은 “5급승진자격이수시험 제도 폐지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한편 결산검사위원 5명 중 의원으로는 강선경 의원이 선임돼 대표위원이 되었다.

그러나 김동식 의장이 강선경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결정하려고 발표하자 한동진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으나 김동식 의장이 몇 번이나 의견 조율을 한 사안으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의사진행 방해라며 회의를 진행하려하자 유인애 의원하고 장동우 부의장이 반발하며 정회를 강력히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김도연 의원은 정회는 의장의 권한이므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말했으나 구본

승 의원도 의사진행 방해는 아니라고 거들자 김동식 의장은 회의 속개 의견을 접고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중 의견 조율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속개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기립 표결에 들어가 새정치연합 김동식 의장, 박문수 의원, 이백균 의원, 김도연 의원, 이용규 의원, 김영주 의원, 강선경 의원 등 7명 찬성, 무소속 구본승 의원 반대 1표로 통과되었다.

김동식 의장은 표결 후 “대표위원은 의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공정한 의회 운영을 위해 예결위원 5명이 합의로 순서대로 하자고 말했다. 의장의 입장에서 예결위원 3명의 뜻을 존중하고 5명이 합의하지 못 한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고 유감으로 생각한다. 다만 의회 운영에 있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의원들이 공유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 중 새누리당 장동우 의원, 한동진 의원, 유인애 의원, 김명숙 의원이 임장했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 건과 의회 운영 방식에 대해 에 대해 유인애 의원과 한동진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유인애 의원은 결산검사 대표위원 건으로 여기까지 온 사태에 대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밝히며 예결위원 5명 중 세명의 의견만 들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로 부담이 많았을 강선경 의원에게도 미안한 심정을 전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

제18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10일 오전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18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김동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이천변 등 벚꽃이 만개해 주위 환경이 활기차고 싱그러운 좋은 계절을 맞이해 모두의 삶이 희망과 즐거움으로 다가오기를 기원하면서 집행부에는 앞으로 열리는 지역축제와 4·19혁명 국민문화제를 철저히 준비해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행사를 참여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4·19민주이념 계승과 우리구의 대외인지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장은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신의 장애를 장애로 느끼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마련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제188회 서울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서울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 ▲서울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2015년도 서울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 201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강선경 의원이 선임됐으며, 기타 안건으로 구본승 의원은 “관내 임대아파트 미사용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해 사용하는 방안”, 김영준 의원은 “동네체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문제”, 유

인애 의원은 ‘5급승진자격이수시험 제도 폐지’에 대해 각 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또 한동진 의원과 유인애 의원의 신상 발언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환경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상정해 1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오는 4월 2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유영일 기자